

複寫活動의 現況과 問題點

姜 俊 浩 譯
國會圖書館自然環境擔當官

《譯者註》이 글은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 中川 毅氏가 圖書館雜誌 1979年 12月號(通卷 673號)에 “複寫活動의 現況と 問題點”이라고 題目하여 掲載한 것을 翻譯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各 圖書館에서도 複寫機를 導入하여 參考奉仕의 일환으로 奉仕에 이바지한지도 10餘年(‘60年代 中半期)이 되었으며 그간 譯者 自身은 ‘67年과 ‘73年에 두번이나 譯者의 勤務處에서 複製係長을 歷任한바 있으며, 歷任 當時 항상 많은 問題點과 애로점(最良複寫, 短時間, 利用者의 要求充足 등)을 當面한바 非—非再하였으나 能力 맞인지 解決하나 하지 못하고 그러한 諸問題를 한번 發表를 할려고도 했으나 此日彼日 하던 중 譯者가 同感을 느낀 글을 發見하여 이 方面에 關心을 가진 諸賢들에게 參考가 되리라 믿어 紹介하는 바이다.

1. 머 리 말

現行 著作權法이 1976年 1월에 施行되어 十餘年이 지나왔지만, 그간 점차적으로 高性能의 複寫機器가 開發되어 널리 普及되었다. 이러한 狀況이 된 것은 複寫活動이 해를 거듭할수록 活潑해지고 있고, 情報傳達에 重要な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官廳, 民間企業, 研究機關, 學校 및 各種 圖書館 등에서 複寫業務는 오늘날 不可缺少한 存在가 되고 있다.

情報社會에 있어서 學術文獻의 情報蒐集에 利用될 機會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傾向은 한편에 있어서는 學術文獻出版社의 經濟的 利益에 損害를 끼치는 일로써 出版界의 批判을 받고 있으며 歐美에 있어서는 著作權의 侵害를 둘러싼 複寫活動에 關係되는 訴訟事件의 事例가 이미 報告되어 있다.

複寫와 著作權에 관한 論文이 이미 몇편이 紹介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複寫의 現場에서 본 複寫活動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2. 複寫作業의 問題

組織體에 있어서 情報管理 system이 確立되고 情報 提供 service가 多樣化되어가는 過程에서 複寫作業만은 合理化가 지연되고 있는 部門에 있다. 抄錄誌나 索引誌의 編輯, 目錄의 編輯, 情報檢索의 機械化 등이 컴퓨터의 利用에 의해서 可能하게 된데 比해서 複寫作業 그 自體는 增加가 계속되어 複寫需要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人海戰에 의뢰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리고 複寫技術의 進歩도 複寫機器의 取扱이 簡單히 되고, 時間當 處理能力이 增加하고, 複寫手數料가 引下되고, 良質의 複製品의 生産이 可能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날의 大量複寫時代를 초래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하겠다.

著作權法施行令은 圖書館資料의 複製可能한 圖書館 등에 관해서 規定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公的機關에서 經濟의 低成長期에 있는 오늘날 職員의 減員을 救濟해 주면서 增大가 계속되는 複寫需要에의 對應策이 急先務로 되어 있다. 또한 最近의 人件費의 引上은 複寫作業의 外注委託志向을 強하게 하고, 그 管理體制를 一步 잘못하면 著作權法의 趣旨를 空文化하는 結果가 될지도 모른다. 原來 圖書館에 있어서 複寫業務는 閱覽이나 參考奉仕 service나 다른 service와 같이 利用者를 위한 service의 一部이다. 限定된 職員이 效率의 以로 配置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複寫作業 自體의 機械化가 當然히 바람직 한 오늘날 複寫作業職員의 問題는 앞으로 圖書館活動의 方法에 影響을 줄 程度로 重要な 問題로 되어 있다.

3. 複寫活動의 實態

다음 表 1, 2, 3은 著作權法에 의거하여 現在 學術文獻 複寫를 大量으로 供給하고 있는 機關에 있어서 複寫實績의 一部이다.

이런 諸機關에서의 複寫 service의 system은 各已 다른 點이 있다. 複寫資料의 一部에 特許資料 등이 포함

〈表 1〉 大學圖書館電子複寫量
('76年度上位 5位)

大學	年度	76年度	78年度	增加率
A大(私)		456萬枚	461萬枚	1.1%
B大(國)		228 "	262 "	14.9%
C大(國)		186 "	199 "	0.7%
D大(國)		185 "	141 "	△23.8%
E大(私)		174 "	205 "	17.8%

資料提供：日本圖書館協會
「日本の圖書館」76,78에서
(註) 78年度の順位는 A,B,E,C,D임

〈表 2〉 國立國會圖書館複寫接受實績

年 度	接受件數	前年度比
1 9 7 3	62千件	—%
1 9 7 4	103 "	66.1
1 9 7 5	129 "	25.2
1 9 7 6	158 "	22.5
1 9 7 7	188 "	19.0
1 9 7 8	202 "	7.4

資料提供：國立國會圖書館
(註) 接受件數는 論文의 表題數를 意味하지 않고,
表題數로 하면 上記의 數倍가 된다.

〈表 3〉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 複寫接受件數實績

年 度	接受件數	前年度比
1 9 7 4	33萬件	—%
1 9 7 5	31 "	△6.1%
1 9 7 6	33 "	6.5%
1 9 7 7	39 "	18.2%
1 9 7 8	42 "	7.7%

(註) 接受件數는 論文의 표題 數를 표시

〈表 4〉 機關別複寫量(78年度)

A大	461萬枚
NDL	350~400(推計)
B大	262
JICST	205
E大	205

되고 있어서 單純하게는 比較가 되지 않지만, 全體의 으로는 增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機關에 있어서 複寫量의 表示의 方法이 相異하게 되어 있는데, 그 複寫量을 一括의으로 比較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大學方式(電子複寫枚數)에 統一하고, 그 一部를 表

示한 것이 上記의 表이다.

여기에 紹介한 것은 複寫 service機關의 極히 一部이며, 이외에 다른 많은 複寫 service를 提供하고 있는 機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日本의 1978年度 全國大學(高專, 單大포함) 圖書館의 總複寫量(電子式複寫)은 約 5,700萬枚(日本圖書館協會「日本の圖書館 1978」에서)로 推計한다.

4. 複寫의 申請

複寫申請書는 보통 그 機關에 의해서 獨自의 樣式이 사용되고 있다(國立大學圖書館이나 醫學圖書館協會會 員間에는 저마다 共通의 樣式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複寫申請에는 그 機關에 따라 表現이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로 著作權法 第30條에 의해서「私的使用」에 관한 內容과 著作權法上의 問題가 생기는 경우에는 申請者가 責任을 지겠다고 하는 要旨의 注意書가 記述되어 있다(國立大學圖書館의 新樣式의 申請書나 醫學圖書館協會의 申請書 등에는 이러한 樣式의 表示가 없다). 國立國會圖書館(以下 NDL)이라고 함)의 申請書에는 注意書 外에 申請者의 使用目的을 記入하는 欄이 있다. 複寫의 申請者는 이 注意書에 의해서 著作權法을 올게 認識하고 申請을 할 必要가 있다. 즉 著作權法의 問題에 관해서는 全的으로 申請者의 良識에 맞기고 있으므로 著作權法을 올게(正當히) 理解하고, 그의 解釋適用에 있어서도 慎重하지 않으면 안 된다.

情報化가 推進되는 過程에 今後 複寫의 申請方法의 多樣化가 豫想된다.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以下 BLLD라고 함)으로서는 이미 世界31個國 105機關에서 텔레크스에 의해 複寫申請을 接受하고 申請으로부터 1週間 정도면 複寫製品이 提出되고 있다. 著作權法에 관해서는, 이곳은 複寫法(BLLD가 供給하는 複製物을 研究個人用만으로 使用하고, 利用을 위해서 販賣는 하지 않는다는 要旨의 申請書)를 提出하면은 이것이 모두 複寫申請에 대하여 適用된다.¹⁾ 또 이러한 텔레크스에 의한 複寫申請을 接受하고 있는 機關은 日本에도 이미 存在하고 있다.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以下「JICST」라고 함)에서는 近來에 앞으로 所藏하는 文獻에 대해서는 온 라인에 의한 複寫申請의 接受를 開始하는 方向으로 現在 準備中에 있다. 이 system은 申請者가 어디에서나 터미널에 抄錄番號(科學技術文獻速報의 記事番號)만 input하면 된다. 이러한 것에서 複寫製品의 納期의 短縮, 關聯事

1) 村木榮西郎, 英國圖書館貸出局(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에 대해서, (科學技術文獻 Service, No.47, pp.1~10, 1977)

務의 簡素化를 도모하게 되며, 利用者에게 service上向을 指向하고 있다.

5. 合理化가 進行中

1) 複寫料金の 決濟에 대해서

圖書館相互協力活動中에서 圖書館間에 文獻複寫 service가 利用되는 事例가 대부분이 되고 있다. 所藏資料의 多少에 의해서 圖書館의 依頼件數의 不均衡이 있으나, 이러한 複寫의 相互協力業務는 1979年度부터 國立大學, 國立高等專門學校(以下「國立大學 등」이라고 함) 圖書館間의 複寫料金の 決濟處理가 機械化되었다.²⁾ 이 system에 의한 國立大學 등 圖書館間의 複寫代金の 文部省이 管理하는 豫算의 振替에 의해서 精算되고, 文獻入手에 要하는 時間의 短縮, 關聯事務의 合理化, 郵送費의 節減 등을 도모하게 되었다. 今後의 活動이 注目되지만 當面한 system은 國立大學 등 圖書館間에 適用되고, 公私立大學圖書館은 利用되지 않는다. 즉 國立大學 등 圖書館과 公私立大學圖書館間의 複寫料金の 決濟方法에 대해서는 여전히 從來의 方式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實態이다. 이러한 實態인 現實에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으나 이 system의 利用範圍가 早速히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해서 비로소 初期의 이 system의 趣旨에서 한층 더 發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目錄에 대해서

圖書館間相互協力業務에 있어서 綜合目錄이 하는 役割은 대단히 크지만 現在 國內에서 刊行되고 있는 目錄에 대해서 若干 言及하고자 한다.

「學術雜誌綜合目錄·自然科學歐文編 1979年版」은 1975年版에 계속되는 第2版이다. '75年版부터 目錄의 編輯이 機械化되고, 그후 3回補遺版이 發行된 후 今回の 版이다. '79年度는 前版에 비해 收錄誌數가 10% 정도 增加하였고, 卷末에 各機關의 複寫接受窓口가 明示되어 있어 利用者에게 便利하게 되어 있다. 다만 會議資料의 收錄件數가 적고, 이것은 單行本으로 취급되어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되지만, 學術文獻中에는 會議資料의 量은 해마다 增加하고 있다. 例컨대 BLLD의 Conference Index(Annual Issue)에 있어서 會議資料의 收錄件數가 이 5年間に 60% 정도 擴大되고 있다. 會議資料는 發行形態가 여러가지이고, 그 所在調査가 困難하다. JICST의 경우 定期刊行物 취급으로 通常의 雜誌番號를 붙여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資料의 發行 및 蒐集이 繼續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會議資料受入番號(K番號)를 붙이고 있다. 또 NDL에서는 雜誌目錄과 別途로 會議目錄(科學技術關係歐文會議目錄)이

發行되고 있다.

「學術雜誌綜合目錄·歐文編」의 編輯이 機械化되고 短期間에 版이 바뀌임에 따라서 「綜合目錄·和文編」은 1968年版 이후 發刊되지 않고 있다. 現段階로서는 和文編의 編輯의 機械化가 實現이 되지 않더라도 新版의 發刊은 必要하다. 醫學關係의 國內誌에 대해서는 「醫學雜誌綜合目錄·和文編」 및 現行 「醫學雜誌所在目錄—國內雜誌編—」으로 所在 調査가 可能하나, 다른 分野에 있어서는 現在の 形편으로서 各 機關으로부터 發刊되고 있는 藏書目錄에 의해서 直接 機關에 照會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든 「學術雜誌綜合目錄·和文編」의 發刊이야말로 圖書館協力業務를 더 한층 發展시켰으며, 또 圖書館에 있어서 蒐集資料의 合理化를 해가는 것이 重要한 課題가 아니겠는가?

3) 博士論文에 관하여

學術情報라고 하는 博士論文에 대한 需要가 달리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博士論文의 入手에 관해서는 日本의 大學에서 보다 外國 특히 美國의 大學編이 入手가 容易하다. 즉 日本의 博士論文은 NDL에 所藏되어 있는 경우에도 通常論文 著者의 許諾없이는 複製物의 入手가 不可能한데 比하여 美國의 경우는 注文番號(Order number)에 의해서 NDL에서 入手可能하다, 또 NDL에 所藏하고 있지 않아도 國內의 代理店을 통해서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以下 「UMI」라고 함)에서 入手가 된다. 모든 大學의 博士論文의 複製品을 UMI로부터 入手가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UMI에 登錄되어 있는 大學의 論文에 대해서는 利用者에게 簡單히 入手되는 點이 日本의 경우와는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博士論文의 複製에 관해서는 著作權法의 權利處理가 早速히 簡素化되는 것이 기대되고 바람직스럽다.

6. 著作權問題에서 世界와 日本의 動向

圖書館은 複寫機器의 消耗費나 紙代를 支拂하는 것과 같이 著作者에 대해서 著作權料를, 出版社에 대해서는 出版料를 支拂해야 한다.³⁾ 라는 主張이 日本의 出版界에서 要求되고 있으나, 著作權問題를 위해서 出版社로부터 訴訟事件으로서 美國에 「윌리엄스 윌킨스」社와 國立醫學圖書館(NLM)의 事例나 佛蘭西의 「단슨」社, 및 다른 3社와 國立科學技術센터(CNRS)의 事

2) 松浦, 門田, 藤原, 圖書館業務의 system化, 國立大學 등 圖書館間相互에 있어서 文獻複寫業務의 改善에 대해서, (圖書館雜誌 Vol.73, No.6, pp.290~294, 1979)

3) 箕輪成男, 圖書館에 있어서 複寫의 實態, 出版界로부터의 發言)東京都圖書館協會報, No.54, pp.1~8, 1979)

例 등은 이미 關係者가 알고 있는 일들이다.

美國, 西獨,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는 著作權에 관해서 集中的인 權利處理機構가 確立되어 있다고 하지만⁴⁾ 日本의 경우 著作權問題에 관한 事件으로 他人의 著作의 一部 盜用이나 盜作, 海賊版事件, 入試問題의 寫製事件 등이 報告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複寫活動에 直接 關係되는 事例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的으로 無形財產에 대한 認識이 낮은 國民性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處理되지 않을 수 없는 時期가 닥쳐오고 있는 것 만은 틀림 없는 것이다.

7. 맺는 말

學術文獻의 著作權에 관해서 著作權思想이 普及되지

않는 하나의 理由로서는 著作物의 生産者가 同時에 使用者가 되고, 결국 同一人이 被害者가 되거나, 때로는 加害者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方法이며, 複寫의 關係者로서는 著作權에 대하여 認識을 높이고 正當한 複寫活動을 行하는 것이 앞으로의 重要한 課題이다.

끝으로 이 論文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資料를 提供해 준 日本圖書館協會 및 國立國會圖書館과 圖書館活動에 관해서도 意見을 베풀어준 諸賢들에 대해서 깊이 感謝의 意思를 表示한다. 한편 筆者의 本意아닌 誤解나 誤謬도 있을지 모르니 詰責해 주면 多幸으로 생각하겠다.

4) 大家重夫, 特集, copy時代, 著作權, 出版權과 複寫(言語生活 No.334, pp.24~35, 1979)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内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街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22) 49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第1卷 豫定價 12,500원	도큐멘테이션概說	3,500원
第2卷 豫定價 12,500원	古書分類目錄法(上·下)	各 3,500원
韓國目錄規則 第3版 豫定價 10,000원	韓國十進分類法解說	3,500원
公共圖書館의 施設 5,000원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500원
國標書記(單·連) 各 5,000원	特殊圖書館	3,500원
非圖書資料의 整理 3,500원	西洋圖書館史	3,500원
參考奉仕論 3,700원	公共圖書館運營	3,500원
情報科學과 콤퓨터 3,500원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3,500원
情報經濟學原論 4,500원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3,500원
大學圖書館建築計劃 8,000원	中國의 典籍	3,500원
一般參考文獻概說 3,500원	參考奉仕	3,500원
學術情報媒體의 指針 5,000원	大學圖書館	3,500원
圖書館學概論(教材) 3,900원	韓國參考圖書解題	5,000원
圖書館學概論(任鍾淳) 3,500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5,000원
韓國圖書館史研究 3,500원	集賢殿考	5,000원
圖書館統計 및 評價 3,500원	文獻情報學研究(1~4)	各 2,500원
公共圖書館 3,500원	韓國圖書館統計	3,000원